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진짜로 믿고 놓는 마음 가지세요

어려분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날 저 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만, 부처님 진리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천차만별로 모두 정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가야만 옳은 것이니까 벌써 2000년이라는 것이 지나고 1년이라는 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2000년이라는,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체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움직임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양력으로는 그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양력 음력이 없이, 이끌어 가는 길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또 1년이라는 해를 만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모두 아난들을 그렇게 해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걸습니까?

누가 대신 마음을 내 주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한 생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살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념코 제각기 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체가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 나가려면 공생이어야 하고,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이어야 하고 몸 한 체의 움직임을 봐도 공생이어야 하고 공생이어야 하죠. 그리고 공체고 공식입니다. 그렇게 인간 모두가 더불어 살아 나가는 현실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때는 100번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리를 말을 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을 텐데 모두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고 차원에 따라서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럴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잊고서라도 얘기했지만 구리는 구리하고 철부는 철부고 금은 금하고 철부는

따라서는 공용이라고 그러죠. 공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체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기 쉽게 누구냐가 다 알게끔 공식이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공용으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공심으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로 공식으로 뭉쳐서 우리가 여려하게 해나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 사는데 모두 공생

그런데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번 왔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더 깊어지는 분도 있고, 이해가 더 가서 아주 여려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려하게 하고 알고 가고 보고 이러한 것이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하나



그림 · 최주현

뿐 아니라 일이 생겼다면 오늘 아침에 비가 왔다고 하듯이 일이 거론이 됐을 때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마음이 공심으로 살고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살고 공체로서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일체 모두가 속속들이 다 연락체가 되는 거고 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우습게 알지 마시고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겉데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처를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면처가 아니라면 일체 부처님도 상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잠자 줄 수도 없고, 막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생각으로 인해서 내부나 외부나 다 살고 또 여러분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데에서 남이 섭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하는 버릇을 하면 그렇게 습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 보지 않은 분들은 당장은 죽어도 그렇게 안되죠. 화가 발려 발려 나는데 웃어야 할 일이, 웃어야 할 일이 생기면 금방 변해서 화난 거

는 다 없애버리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생각해 주고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 보면 금방 아빠가 되고, 금방 형이 되고, 금방 남편이 되고, 금방 아들이 되면서 여려하게 해 나가고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이 말합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말길데 있어 살기 편해

연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 하는 데에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없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나가는 대로 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든 말 한마디가 왔다 하면 그새 알았어 하는 건 뭐냐. 모든 걸 다 전파하고, 모든 건 사람의 생각대로 이지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요. 모두가, 그런데 자기 마음이 더럽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자기 앞발을 한발 한발 때어놓을 수가 없이 그냥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는 보이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거와 꺼지는 거는 보이죠.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에서 켜지고 꺼지는 거는 알고 그 걸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못

보고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나고 드는 것을 못본다고 안나온다 할 수는 없죠. 그렇듯이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알았다고 할 때 벌써 미국이고 어디고 다 행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국이라고 해도 가깝거나 멀고 없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멀고 가깝고 없어요. 요 문지방 너머나 마찬가지로요. 더 멀고 더 가깝고가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자를 진짜 믿고 거기가 말져 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로 믿어져야 편안하게 다 도량이 풀어지죠.

나는 여러분을 웃기는 재주가 없나 봐요. 오전에 법사스님은 여러분을 웃기고 그러시던데, 나는 여러분을 웃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저 스스로 웃고 스스로 얼굴을 펴세요. 간권이 나 한가지예요. 마음이 우그러들면 별

애쓰지는 않으셨죠. 그뿐만 되면 편안 한 거죠 뭐. 조그맣든지 크든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조그만 걸 가지고 도 몸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서 온통 이를 사들이 가도록 엉클어지게 되고 오래 가면 병이 되고 그런 거죠 뭐. 혈관이 막히고 피가 제대로 돌질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은 모두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일체로, 지금 현실로 만이 다 갈 수가 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에 미래도 있는 거고 과거도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누진을 자동적인 컴퓨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이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놓는다면,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다 다시 놓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이 되어서 현실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업이 많은가 하는 것도 다 무효죠.

모든 건 생각대로 이루어지니 스스로 웃고 스스로 펴고 살라

써 몸도 얼굴도 우그러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마음을 우그러들리면 모든 식구가 아주 힘들고 죽고만 싶다고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가 마음이 더 우그러들죠. 그러니까 얼굴도 우그러들죠. 아버지가 왜 또 지랄하게 화가 나셨냐? 왜 지기가 저런가? 하고 식구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편안치 않죠. 식구 수대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하게 편안하게 거기다 다 말기라는 겁니다. 말길 데가 있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말길 데가 없다면 정말 편안치 않겠죠. 말길 데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편안하다. 그런데 말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왜 안 되고요. 떠나서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산다 하는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요. 생각대로 이니 생각을 온종일 하지 마시고 펼쳐서 편안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마음이 여지껏 그렇게만 보고 살아와서 넓은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일을 모르니까 크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이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좁히고 우리나라, 나라가 있으니가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대로 위하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모두들 맡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사람이니 맡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 미운 거 하나 가지고 온 나라를 다 그르쳐 놓는 거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웃음도 나오고 남에게도 좋게 말을 해 줄 수 있고 좋게 이끌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남을 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나간다고 뭐 그렇게 될까 하겠지만,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잊고서라도 과거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업이 많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그것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지금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먹는 사이가 없이 먹고, 사는 사이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겹질을 이끌어 가면서 상대성으로서 모두 더불어 같이 봐야만 다 잡히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물질로서 그렇게 봐야만 사는 거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차라면 끌고 다니는 속의 운전수가 더러우면 닦고, 망가지면 고치고 또 다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 간편하게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생각에 그렇게, 미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요 한 발짝 너머가 미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중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다른 축성이 되고,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전부 뜻으로, 진리의 뜻으로서 혼란이 되니까 여기서 물질로 살던 분들이 가면 그게 맞지 않아서 누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참 편안하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편안하다. 지금 금방 죽을 일이 생겨도 내가 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밖에 할 능이 없으니까 고치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야 하고 그 자리에 맡기세요.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마음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여기서 하는 줄은 아는데 거기서 응답이 오는 분들은, 무슨 꿈으로 보이나 하더라도 틀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시에 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고 놓으세요. 부처님은 항상 일대사의 인연을 돌 아나니 다 치우셨다 했으니 틀이 아니다. 모든 생물은 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틀이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꿈에 어떠한 게 나와도 말을 안 하더라도 없어요.

이 모두가 현실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이 마음입니다. 그

20면으로 계속

금방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듯 여려하게 걸림없이 사세요

되고 무쇠는 무쇠하고 철부는 철부고 철은 철하고 철부가 되어서 제각기 천차만별로 끼리끼리 만나서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본은 한 군데서 다지만 갈래갈래 차원으로 끼리끼리 통처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보신다면 다 아시겠죠. 왜 이런 말을 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곱게 가느냐, 좀 거북하게 가느냐, 아주 거북하게 가느냐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해서, 말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깐 비가 부슬부슬 오더군요. 그런데 퍼뜩 어느 스님이 오늘 비가 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잔작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러니까 저도 비 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 지금 오고 지금 보고 지금 듣는 것도 모자라지 않아. 이 마음은 한 찰나에 전 우주를 도니까 말이야. 그리고 때때로 용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분별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로 철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진실을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가정에서 바쁜 분들은 여유롭고 지혜가,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가정에 있는 일들을 해하고, 마음내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벌써 이것은 그다 이것은 옳다 하게 되고, 그게 법이지만 그러나 공법은 못돼요. 내가 같이 살아 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말을 어떻게 해아만 옳겠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 분단으로 나누어서 말할 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소꿉장난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 해어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아주 모르는 분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그저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거기다 놓지 않으면, 자기 기동 주장자에 놓지 않고는 안되는 거니까요.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통신체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놓고 가되 만약에 우리 한국

가복은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통(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이서즌

